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24, 행운의 역전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24회 '운세의 역전' 입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히스기야로 끝났으며,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확립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하는 방식 때문에 두 번째 솔로몬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 곧 평화의 사람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가 묘사된 방식입니다. 궤를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후에 솔로몬은 언약의 중요성에 관한 신성한 메시지를 받았고, 아마도 역대기 전체에서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소서.

이제 모든 왕을 묘사할 때 연대기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단어가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절의 거의 모든 단어가 히스기야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대기 작가가 열왕기의 세 장을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18절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스기야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그 자신의 자료입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줄 알았으나, 바벨론 사절단을 방문한 일 등 히스기야에 관한 사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나 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자신과 역대기 기자에게 겸손할 때, 이것이 신실함의 표시입니다. 불성실의 표시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신실했고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시험에서 잘 나왔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잘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자 그를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실패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히스기야가 실패 했지만 여전히 신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대기의 요점이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 세션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살펴보면서 운명이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운의 역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봅니다. 그들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이 공식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개요에서 우리는 이제 제가 굴욕과 희망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유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굴욕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작가는 그것을 거기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열어주는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매우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열려 있는 미래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소개되는 왕은 므낫세입니다. 이제 열왕기에서 므낫세는 보편적으로 나쁘다. 실제로 열왕기는 므낫세를 뒤따른 요시야의 온갖

대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운명은 결코 돌이킬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악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킹스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연대기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믈닷세가 영향을 받은 악한 방식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믈닷세의 통치 기간에 앗수르의 세력은 에살하돈이라는 황제 아래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세력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사실, 에사르하돈의 가신 조약은 우리가 현재 시리아 전역의 사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조약이며, 우리는 아시리아인들이 동일한 가신 조약을 예루살렘 성전에 게시하도록 요구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그러므로 믈닷세의 제국이나 적어도 그의 왕국이 나타날 방식에 관해 믈닷세에게 많은 앗수르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는 믈닷세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한 일은 가증한, 아마도 가장 가증한 민족들의 숭배 관습을 초래했다는 점을 간단히 알려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특히 강령술사와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덩이 속의 점쟁이이자 죽은 자로부터 영혼을 불러내려고 노력하는 Ov를 부릅니다. 믈닷세는 이 모든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최소한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신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믈닷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에사르하돈 시대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역의 다른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설명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어서 연대기 기자는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믈닷세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는 믈닷세 통치 기간 동안 앗시리아가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에 다소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믈닷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으며, 연대기 작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시리아로 빼앗은 많은 포로와 모든 전리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가능성 있는 계기는 바벨론의 지도자인 샤마시숨우킨(Shamash-Shum-Ukin)의 반란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앗수르 사이에는 항상 큰 경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인들이 여전히 광대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이 지도자는 아시리아인들에 맞서 자신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므낫세도 아마 비자발적으로, 어쩌면 강제로, 르산과 베가가 아하스에게 시도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여 앗수르에 맞서 그와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 때는 므낫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연대기의 키워드가 작용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나. 이 포로 생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므낫세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해진 후에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대기 작가의 관점입니다. 때로는 보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나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연대기 작가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우리는 불성실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결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여, 당신이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어떤 종류의 보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항상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실제로 시작과는 정반대로 번영을 누리며 끝난다. 연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성벽을 회복한 방식, 성전 예배를 회복한 방식, 모든 제사 송배를 제거한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모두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 배경이 없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한 일은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암몬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는 단지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대기 작가가 암몬의 통치 요약에서 그에 대해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상되는 것과 반대입니다. 암몬 다음에는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 기억하는 요시야는 어떤 면에서는 언약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역대기 기자 요시야가 그의 통치 제8년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는 토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치 제십이년에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는 즉위 18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 맥락에서 그들의 실패의 결과,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의 결과를 깨닫기 시작한 요시아에게는 일종의 혁명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홀다와 의논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성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 매우 드문 경우 중 하나이며, 그녀는 제사장과 결혼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맥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그들이 찾아가는 것은 여선지자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읽고 있는 이 저주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 역사의 일부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실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홀다의 권고에 따라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지만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언약의 맹세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 완전한 충성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실패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에서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갱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을 주신 자와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유월절에 관해 읽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과 속죄가 이루어질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이미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묘사한 것처럼, 다윗이 시편 98편에서 인용한 것처럼 그것은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기념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Chronicler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행된 절차를 풍부하게 설명합니다. 이곳은 히스기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요시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가족축제가 아닌 순례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양을 잡는 일 등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축제입니다. 그것은 매우 포괄적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시야 시대에 일어나는 갱신이며, 이 헌신과 율법의 성취로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 반전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09년이 다가오는 요시야의 통치가 끝날 무렵,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미 세력과 세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보다 약 15년 전인 627년에 이미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국들에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시 장악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느고와 그의 군대와 함께 갈그미스에서 앗수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치명적인 전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것은 요시야가 여기서 정치적 야망을 위한 기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Chronicler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King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단지 결과에 대해서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곳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배하던 지역을 정치적으로 장악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요시야는 요단강 서쪽 지역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갔고, 그런 점에서 가서 이집트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는 자신이 이집트 군대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요시야가 사마리아와 북쪽의 풍요로운 영토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벨탑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 시점부터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통치는 신속하고 치명적으로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요시야는 그렇게 높은 지점에서 시작하여 언약을 갱신하면서 왕국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622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연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이미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큰 축하 행사와 계약 갱신의 정점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국의 마지막 날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 버리신다는 것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연대기 기자가 불성실할 때 말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연대기 기자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큰 축하의 정점에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지점,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 배척당하는 지점, 우리가 종종 통곡하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실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요시아 통치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불성실과 실패에 대한 충실함.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24회 '운세의 역전' 입니다.